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공보처 차관 시절 편집기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기능 강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0년 모 지역일간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공천헌금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조정이 잘 되어 1면에 정정보도문을 크게 게재해 제 명예를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의 일도양단식의 판단이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제도와 기구를 국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 ● 사이버공간의 윤리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에 ‘선플정치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선플 달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하셨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이버윤리 문제를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악플)을 통한 인권유린이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선플운동을 시작했고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선플의 날’로 선포해 매년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규

제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아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캠페인을 통해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인터넷윤리 골든벨 퀴즈를 출제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외에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위원장이 되시고 100일 동안 스스로 평가를 해주시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참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온 느낌도 납니다. 자평하기에는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공보처 출신이고 국회에서도 방송통신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업무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과 상임위원들의 훌륭한 인품과 실력 덕택에 출범 당시 우려와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미래부와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출범하자마자 MOU를 체결하고 기금도 공동 관리하기로 하는 등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 협력을 다지기 위해 조만간 고위급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계획이며 부처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 문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외부에서 나쁘지 않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나 정책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승민 (홍보팀 차장)

## 위원동정

# COMMISSIONERS



##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맡아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7월 15일 민병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가 주관한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손 위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소통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COMMISSIONERS



## ‘한·중 미디어 산업의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김정탁 위원(서울제6중재부, 언론학회 회장)은 7월 9일 오전 10시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첨단강의실에서 중국 언론학자(베이징대 신문방송연구회)를 초청해 ‘한중 언론 산업의 진단과 발전전략 정립’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위원회는 중국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 위원은 7월 19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미디어 연구의 지형을 성찰하고 인문학적 접근과 가치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인문학 기획 제2차 세미나 : 커뮤니케이션과 매체’를 개최했다.



## 방송법과 IPTV법 법제정비를 위한 연구 참여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방송법과 IPTV법 법제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법제정비 연구반’에 참여한다. 주 위원은 방송분야 전문가로 연구팀에 합류해 케이블, 위성, IPTV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위원회 소식

## NEWS

### 국방대 안보과정 재학생 대상 교육 실시



위원회는 국방대에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2013 안보과정 재학생 210명(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공기업 고위직, 현역 장군 및 대령)을 대상으로 국가위기관리 언론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요 정책관리자로서 언론 브리핑 및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언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위기 시 대언론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앞서 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과 국방대 박삼득 총장(중장, 육사35기)은 국방대와 위원회 간의 상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간담을 나눴다.

### 학교내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교사직무연수 실시



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통한 학교내 갈등해결방안에 대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조정, 중재, 협상,

문제해결 등 갈등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교과와 함께, 명문가의 교육철학 및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인문교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사직무연수는 지난 3월 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2차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 ADR 교육 홈페이지 오픈



올해 초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위원회가 7월 11일 ADR 교육 홈페이지 (<http://edu.pac.or.kr>)를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ADR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웹표준과 웹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하여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DR 교육 홈페이지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http://www.pac.or.kr))의 배너, 팝업창 등을 통해서도 방문할 수 있다.

###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6월 30일 각급 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을 모아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판결 통계 분석과 함께 2012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판결 전문이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유형별로 수록되어 있다.